

달라진 위생복

주체 106(2017)년 6 월 초 강서약수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로 꾸린 수지통약수생산공정을 보아주실 때였다.

기대옆에서 약수통에 밀봉비닐을 씌우고있는 기대공의 작업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안색을 흐리시였다.

모두가 그이의 시선이 향해진 곳을 바라보았지만 영문을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에게로 다가가시더니 그의 옷차림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짙은 청색천으로 만든 기대공의 위생복을 손수 만져보시고는 색깔이 너무 어둡다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강서약수공장 기대공들의 위생복은 산뜻하면서도 음료공장의 특성에 맞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일군에게 위생복도안을 만들어 올려보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뜨거운것을 삼킬뿐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그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 공장 종업원들의 위생복도안을 친히 보아주시고 흰색옷속에 연한 청색의 바지를 받쳐입도록 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손수 선정해주신 산뜻한 새 위생복을 입은 종업원들의 모습은 환해졌으며 생산현장 또한 밝아졌다.

달라진 위생복, 정녕 거기에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많은 약수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길 바라시는 간곡한 당부가 담겨져있었다.